

기후변화협약 활성화 국제포럼 15일 개최

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(이사장 손주석)은 12월1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<기후변화협약 대응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>을 개최하고, 기후변화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(2006년 11월6일-11월17일 케냐 나이로비 개최) 논의 결과와 주요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카니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.

교토의정서 발효 후 온실가스 저감활동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전반의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포럼에서는 2012년 이후 부속서 I 국가의 추가 감축의무 설정 논의일정 합의 등 제12차 당사국총회의 논의 결과와 <영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스템 현황 및 운영>, <미국 EPA의 온실가스 등록시스템 소개>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교토메카니즘 운영사례 등 국제동향을 파악하고, 기후변화협약 대응 산업부문 대책과 환경부-환경친화기업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통합 감축을 위한 자발적협약 후속조치와 같은 국내 기후변화 협약 대응 추진경과와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게 된다.

또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(KBCSD)와 환경친화기업 사업장,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및 관련연구기관, 국내외 CDM 운영기구인 DOE(Designated Operational Entity), 지방자치단체, 지방의제 21 등 기후변화협약 관련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협약대책 수립과 시행, 기후변화 협약대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화학저널 2006/12/14>